

네코노아나 ~배빵지옥 1화 -한국어

다가오는 근미래. 나노의학의 발달로 무제한의 투기시합이 흥행의 중심에 서게되었습니다. 지하복싱클럽 '네코노아나'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유복한 가정의 영애였던 유즈하나 오리에는 가업의 경영악화로 가게가 어려워지자 평소 심했던 낭비벽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하복싱에 참전합니다. 데뷔 후 6연승을 달성한 슈퍼루키였지만 유리복부라는 약점이 라이벌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되는데..

“조금 과식해버린걸까나.”

지하복싱 경기장의 로비. 시합 개시까지 얼마 안 남은 시간, 반입한 가츠동을 해치운 오리에가 자신의 더부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조금 후회를 하고 있었다.

이번 대전상대는 이웃 고등학교의 가루복서 시라토리 료코. 이전에 한번 오리에에게 패한 전적이 있기에 료코에게 있어 이번 시합은 리벤지매치였다.

“뭐 좋아. 한번 이겼던 상대고 컨디션 무너지기 전에 단번에 해치워주지.”

네코노아나의 지하복싱시설,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과 함께 경기장의 스포트라이트가 두 복서를 향한다.

회장의 열기 이상으로 두 복서 상대를 도발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누군가했더니 지난번 나한테 개발린 샌드백이잖아? 그렇게 맞고도 또 덤빌셈이야?”

“흥, 네년이 나뉠 수 있는것도 오늘까지야. 그 건방진 주둥아리를 면상재 짓이겨주지!”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나한테 맞고 피떡이 났던 주제에 솔직히 웃기거든?"



"뭐 좋아. 이번에는말로 누가 여왕님인지 확실히 깨닫게해 주지!"

한번 이겼던 상대로 절대적인 자신감에 차있던 오리에, 하지만 그런 방심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시합 초반 2라운드에 다운을 따내며 료코를 압도하던 오리에였지만 오리에의 이상을 감지한 료코가 집요하게 오리에의 복부를 공격했고, 6라운드, 마침내 상황이 역전되어 링포스트에 몰린 오리에가 료코의 펀치에 배를 흠씬 두들겨맞고 있었다.

"음! 육! 오웁!"

료코의 보디블로 얻어맞을때마다 위장의 내용물이 배 안을 휘저으며 기분나쁜 구토감을 유발한다.

"보아하니 뱃속에 좋은걸 감춰놨나보네. 지금 입 밖으로 끌어내주지!"



"오..오웁...! 부웨에에엿...!"

아랫배에 깊게 박히는 바디 스트레이트. 평상시 같으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격. 하지만 여러 악재로 움직임이 둔해진 오리에는 피하지 못하였고 이 한 방이 승부를 결정지었다.



"오라앗!!"

"오봇!"

료코의 오른쪽 스트레이트에 안면을 직격당한 오리에의 몸이 크게 튀어 링 포스트에 매달린다.



로프에 양팔이 묶여서 무방비가 된 오리에에게 료코의 펀치 러시가 쏟아진다. 오리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샌드백처럼 두들겨 맞을 뿐이었다.

“오웃...!웁!부헉...!우우웁...!”

이전 시합과 달리 역전된 입장에 료코가 조소한다.

“누가 샌드백이라고? 양?”



“구웨에에엑!!”

링 포스트에 퇴로를 차단당한 오리에의 내장이 료코의 보디 블로 사이에서 마구 짓이겨진다.

“오리에 선수! 강력한 왼쪽 보디에 참지 못하고 구토한다! 이미 패배는 확정인건가! 그러나 료코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다!”



마침내 공이 울리고 심판이 오리에와 료코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시합을 중지시킨다. 료코가 피떡이 된 오리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런 미소를 짓는다.

“어떻게 된거야? 여왕님. 누구 주먹이 위인지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거 아니었냐?”



“우..웃! 킁! ..게...핵...!”

오리의 짓이겨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닌 돼지울음소리 같은 것이었다.

“흥! 암돼지년이, 쓰다버린 샌드백이 된 기분이 어때? 한번만 더 눈에 밟혀봐. 피떡이 된 정도로는 끝나진 않을테니까.”

이렇게 료코와의 리벤지매치는 오리에의 완패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 시합은 이제부터 시작될 악몽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아직 그녀는 알지 못했다.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해 공유 자제부탁드립니다.